

# 우리시대의 '만해'와 '육사'를 기대하며

## 비평가가 읽은 이 계절의 시집

정한용  
문학평론가

이 글은 지난 4월경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발간된 시집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씌어진다. 그러나 수없이 많이 쏟아져나온 모든 시집을 나열하는 일은 불가능하기도 하려니와 생산적인 접근방식도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시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주목되는 9권의 시집을 개별적으로 훑어보려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 짧은 지면으로 다루기에는 과중한 주제이기에, 필자가 이미 다른 지면을 통하여 발표한 두개의 글, 「이데올로기의 상실과 미시세계로의 전이」(「문학정신」 92. 1)와 「언어와 메타언어」(「현대시세계」 92. 여름)에 많은 것을 미루려 한다. 그 글을 통해 최근의 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정리되었다고 믿는다.

### 절망을 향한 잠언, 모색인가 퇴행인가

문학은 동시대의 역사적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시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데 매우 민감한 축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의 절망적 흐름은 90년대가 지니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시가 당대의 질곡을 뛰어넘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잠시 우리 문학 내외적 환경에 주목하여 보자. 지금은 6공 말기로 통치권의 누수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사회에서는 기본 도덕과 질서가 무시되고 있으며, 문화는 주체성을 잃고 점점 신식민지 속속화를 향하고 있다. 뽀뽀 브루자아의 비대화로 창의적 탄력은 쇠진해지고 있으며, 기본모순에 대한 해결의 전망 역시 불투명하고, 사회 구성원 각각의 행복의 척도도 물질화되어가기만 하고 있다. 문학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분과주의와 카니발적 언술이 난무하며 80년대 문학이 지니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와 비판의 힘을 거세시켜버렸다. 문학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가 삶의 진실에 대한 인식과 아름다움에 대한 형상이라고 할 때, 지금의 문학은 진실에 대한 탐구보다는 '사실 자체'에 더 밀접해 있으며, 일상성에 대한 접근을 아름다움으로 오해하고 있다. 전망은 사라지고 비판의 힘도 사라진 지금, 문학은 특히 시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지금 우리가 절망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는 이러한 조건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일상에 발이 묶여 인식의 해방을 꾀하지 못한다면, 시는 어슬픈 잠언에 빠지고 우리사회의 흐름처럼 퇴행하고 말 것이다. 한용운, 이육사 등의 시적 성취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 볼 일이다.**

후기산업사회로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일상성'과 '기호의 소비'가 삶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리라는 사실을 르페브르와 보드리야르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의 지적은 제1세계적 관점에서의 모델을 제시한 것인데, 우리의 경우 이 모델이 아직은 완전하게 자리잡히지 않았고, 또 그들의 지적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지금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긴박한 과제가 생겨난다. 그렇다고 거창한 것도 아닌, 어쩌면 매우 소박하기까지한 과제이다. 즉 지금의 우리 문학이 해야 할 임무는 미세한 일상이나 부분이나 흔적을 살피는 일이 아니라, 불투명해진 진실을 다시 찾고 미래로의 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90년대 들어와 씌어지고 있는 시 작품들을 읽으며 필자가 느끼는 단순한 생각이다. 어떠한 논리 이전에 현재의 시들에 대한 필자의 진단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 현상과 진리는 이원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식의 반론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반론은 타당하고, 세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주장에 반박할 겨를이 없다. 다만, 지금의 시가 미세한 일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것을 보편적 진실로 무리하게 일반화하려다 보니, 일종의 퇴행된 잠언형태로 떨어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가 주목한 시집은 모두 아홉권이다: 손진은, 「두 힘이 숲을 설레게 한



다」(민음사) / 송재학, 「살레시오네 집」(세계사) / 원재훈, 「나타의 사랑」(청하) / 이진명, 「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민음사) / 전영주, 「물 속의 물방울」(문학아카데미) / 채호기, 「지독한 사랑」(문학과지성사) / 한정옥,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문학세계사)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문학과지성사) / 강윤후 외 12인의 앤솔로지, 「검은 색은 내게 공포를 준다」(여민사). 이들은 모두 젊은 시인들이다. 송재학, 한정옥, 허수경을 제외하면 모두가 첫시집이며, 특히 마지막의 앤솔로지는 최근에 등단하여 아직 개인시집을 내지 않은 젊은 시인들의 작품이어서, 필자의 시집선정에 약간의 불균형이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우리 시단에서 가장 활력적으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인들이기에 지금 우리 시의 흐름을 조망하는 데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일상에 뿌리 둔 보편적 원형 탐구

먼저 일상성에 대한 탐구를 중요한 모티프로 삼고 있는 원재훈, 전영주의 시집과, 「검은 색은...」에 실린 김준식, 신현림, 이선영, 이진우 등의 작품에 주목해보자.

하이웨이 주유소에서 급유시키듯  
허름한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잔을 마시고  
안주를 많이  
집어먹어라 사노라면 언젠가는..... 흥얼거리면서 낮게 낮게  
그리고 슬프지 않게  
- 원재훈, 「하이웨이 주유소」에서

이 구두는 지나치게 낡았다  
나의 험한 발걸음이 이 구두의 여러 몸을 망쳐놓은 것이다.  
오 용서해다오, 나를 만나는데 아니었던 불운한 구두여  
이 구두도 이제 버려질 때가 된 것이다  
- 이선영, 「현 구두를 보며 탄식함」에서

원재훈은 인생살이를 '길'이나 '물'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 작품에서의 '하이웨이'도 역시 그런 범주의 것이다. 이선영은 이 작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작고 미세한 상황을 그만의 독특한 인식으로 끌어들인다. 지면관계상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전영주는 사물이나 사건을 의미확장하여 형상화시키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의 시는 일상과의 친밀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상의 주변에 깔려있는 객관적 상관물들에 매달린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한다. 시가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들이 그리는 일상이 역으로 삶의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주목하면서 체감도할 필요를 느낀다. 원재훈은 '길'의 이미지를 관념화시켜 시인의 개별적 인식보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편이고, 이선영에게 있어서의 일상성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보편성을 옹호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원재훈이 낭만주의에 가깝다면 이선영은 모더니즘 쪽으로 기운다. 원재훈이 보다 전통적 방식으로 일상에 접근한다면, 이선영의 접근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일상

이면서도 새롭고 낯설고 독특한 것이 된다.

사회가 아무리 다변화되었다 하더라도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우리가 느끼는 일상은 거의 공통적이다. 이들 시인이 그려내는 일상 체험이 이색적이거나 이해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선영, 신현림, 김중식 등이 일상을 새롭게 해석해내려고 애쓰는 작업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런데 모든 시인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일상에 대한 적극적 탐구보다는 스스로 일상이라는 작은 테두리를 그어놓고, 거기에서 얻은 평범한 깨달음을 마치 보편 진실인 것처럼 확대하고 그것을 잠언처럼 늘어놓는다. 잠언은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철저한 인식의 고통없이 나오는 잠언은 절망을 향한 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일상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일상을 뿌리로 하면서 보편적 원형을 탐구하려 애쓰는 시인으로 채호기, 한정옥, 손진은, 이진명 등을 꼽을 수 있고, 「검은 색은…」에서는 강윤후, 박형준, 이학성, 장대송 등이 있다.

너에게 다가가기 쉽지만, 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꿈쩍도 않는 너. 차라리 난 네가 되고 싶다. 될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다만 의식의 색깔이 흐려지는 마지막, 내가 네가 되어가고 있는 순간을 살 수 있을까? 그리하여 하나가 다른 하나의 삶의 추억을 천천히 되새기며 일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 채호기, 「너의 몸을 허공에 새기며」에서

습관과 이성의 독재로부터 탈출한 어떤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높은 어느 구석에서 내려 쌓이는 먼질 향기처럼 맡고 있을 것인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로 웅얼거리고 있을 것인가  
- 손진은, 「중심, 도처에 우글거리는」에서

채호기는 「몽염」 연작으로 그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데, 절망으로 폐쇄된 세계 속에서 세계 밖을 향하여 끊임없는 절망의 신호를 보내려 애쓴다. 손진은은 절망을 감추고 보다 형이상학적인 관념들을 형상화하려 한다. 역시 인용하지는 못했지만, 이진명은 '끝'으로 상징되는 위기의식과 거기에서 벗어

나려는 방법으로서의 보편성에 대한 꿈꾸기를 시도한다. 한정옥은 삶에서의 절망과 고통을 치열하게 다스리고 이를 통한 자아확인에 주력한다.

인용한 채호기의 작품을 세밀히 읽어보면, 시인은 '속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는데, 몸속으로 들어가 일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 대상이 곧 윤패된 자아와 대적점에 서있는 절망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손진은의 시에서 그가 새로 세우고자 하는 질서는 결국 어지럽혀진 세계에 대한 인식, 즉 중심이 사라져버렸다는 인식에 다다른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지해온 기존의 질서체계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지도 않았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절망과 혼돈의 몸부림으로 전환되는데, 채호기에겐 보다 격렬하게 손진은에겐 점잖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이 일상에 파묻혀 있지 않고 어느 정도 현상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 부류의 시에 대하여 필자가 지적한 문제점을 이들이 뛰어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망에 대한 가능성은 박형준이나 장대송에게서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 즉 과거의 기억에서 원형을 찾고 그것을 미래를 향해 열어놓는다. 박형준의 「장롱 이야기」나 장대송의 「초분」 등은 서정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성을 날줄로, 새로움에 대한 탐구를 씨줄로 삼아 작품을 풀어내고 있다.

### 고통 초극한 절대세계의 지향

지금까지 필자는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절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그것이 어설픈 잠언으로 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앞길에 대한 시야를 흐리게 하고 총체적 관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시인의 눈은 현상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검은 구름 뒤에 펼쳐진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꿰뚫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의 이러한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길 이 좋은 작품이 될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학은 인식과 함께 형성이라는 실천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허수경과 송재학은 서로 상반되는 방향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이승잠을 이어가는 늙은 여자의 귀는 물결과 탄식에 시달립니다. 어느 산 상상인가 파도처럼 온몸 꿰뚫고 죽음과 안개가 여자를 데려갑니다. 여자의 눈은 세상과 마음이 깎아내는 상상봉 검은 바위 흰 나무를 지켜봅니다. 그래, 산이고 햇빛이고 물이고 다 내 몸 안 것이 바뀌고 바뀌어서 다시 내 몸것으로 찾아오는 게야

- 송재학, 「가을날에서 봄날까지」에서

환멸아, 네가 내 몸을 빠져나가 술을 사왔니?


아린 손가락 끝으로 개나리가 피는구나  
나, 세간의 블록담에 기대 준다

- 허수경, 「쉬고 있는 사람」에서

송재학과 허수경의 이번 시집은 모두 두번째 시집에 해당하고, 결점부터 이야기하자면, 첫 시집에 비하여 깊이와 설득력이 뒤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이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 시집보다 훨씬 치열해진 고통과의 싸움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의 지향점이 결코 현실의 고

통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현실을 넘어선 세계, 고통을 초극한 절대의 세계를 펼치기 때문이다. 표면상 이 두시인의 방향은 매우 다르게 보인다. 송재학이 내부에서 외부로 지향하는 모더니즘적 자세라면, 허수경은 외부에서 내부를 지향하는 리얼리즘적 자세를 갖는다. 그러므로 송재학의 지향점은 단단한 자아의 구축을 통한 기존질서에의 도전이며, 허수경의 지향점은 현상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한 주체의 확립에 있다. 지향점이 뚜렷한 만큼 이들의 시는 어설픈 관념주의나 물질주의에 함몰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절망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는 이러한 우리의 조건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일상에 발이 묶여 인식의 해방을 꾀하지 못한다면, 시는 어설픈 잠언에 빠지고 우리 사회의 흐름처럼 퇴행하고 말 것이다. 한 용운, 심훈, 이육사 등의 시적 성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일이다.



**이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희 가보라인에서는 -  
 풍부한 경험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내용의 좋은 책,  
 표지디자인이 잘된 책,  
 보기에 편하고 어법에 충실한 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책 -  
 그 책을 만드는 귀함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출판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 미술/ 표지디자인, 삽화
- 편집/ 단행본 교정, 교열, 운문, 사보편집
- 집필/ 회고록, 자서전, 광고문안작성
- 번역/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 전산/ 전산조판

출판 소프트웨어 -  
**가보라인**

서울 종로구 재동 107-1(안국전철역 옆)  
 T : 765-9027, F : 764-8238